



“마음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그늘이 있으신가요?”

박승애

(하늘다리 호스피스단장/한국호스피스협회경기지부장)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양약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은 노래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심어 짝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바란다면 결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부르는 노래만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결과만 보게 되면 우아하고 아름답게 맺혀있지만 사랑의 과정은 고통과 진통들이 오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때로는 아픔으로 눈물이 괴로웠던 흔적들을 남기고 지나간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도 털어 버리고 내 던져 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수없이 스치간다. 돌아서고 싶은 마음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덮어버린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외로움도 알아가고 고통도 배워가는 중에 장성하여 오히려 어린이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나보다 커버린 사랑의 가슴은 미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곧 미움은 사랑이란 공식도 알아가게 된다. 그런 다음에 가슴 안에서 자라버린 사랑은 그늘 되어 작은 새들도 편안히 앉아 쉬었다 날아간다. 마음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그늘이 있으신가요?

그 가슴엔 예수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분일 것이고 그의 얼굴에는 주님 그분의 형상이 그려지고 있는 분일 것이고 그의 삶에 예수 그분의 생활방식을 쫓아가고 있는 분일 것이다. 아마도 그 분은 이런 사랑을 가슴에 담아놓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다.

누군가가 설만한 사랑의 그늘이 없다면.....누군가가 설만한 사랑의 그늘이 있다면 그는 여름 가뭄의 여름 냉수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는 큰 것을 버리는 경건의 연습을 남모르게 열심히 한 결과 일 것이다.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일에 감격할 수 있고 강박함으로 내버려두지 않도록 소박하지만 그 곳에 진실함이 있으면 되고 아주 작은 그 속에서 더 작은 기쁨으로도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될 때 익명으로 써놓은 작은 진실한 기도는 어쩔 주께 아뢰는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이 되리라 생각 한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뽀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매일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행복하리라